

#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김 한 샘  
(연세대학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사전의 백과사전적 요소로서의 전문용어 기술을 불교 언어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불교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니 크게 언어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특정 승려의 언어관 탐색, 불교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교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은 특정 불경을 분석한 연구와 불교 영역 전반에서 쓰이는 어휘에 대한 연구로 나뉘는데 기존 국어사전에서의 불교 어휘를 살펴보니 인명, 지명, 책명, 역사, 불교' 등의 전문 영역 분류에 걸쳐서 분포하였다. 전문용어의 일반어화가 진행된 경우 전문용어로서의 의미와 일반어로서의 의미를 각각 다의어로 기술하되 어느 것을 먼저 배열하느냐로 개별 어휘의 일반어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불교 어휘의 경우 불교용어로만 쓰이는 단어가 가장 많았고 일반어로서의 용법이 우선인 것, 불교용어로서의 용법이 우선인 것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불교 용어에서 비롯된 어휘도 있었다. 한 사전 안에서 언어 단위에 따라 전문 영역 표지가 달라지는 경우, 사전별로 불교 전문용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기존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와 사전의 기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등 섬세한 검증이 필요로 하는 사례는 향후 종교 전문가와 언어 전문가, 사전 전문가의 협업을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27)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전, 백과사전, 전문용어, 불교용어, 다의어

## 1. 머리말

콘텐츠를 담은 매체의 전달 방식이나 용량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은 기준 항목이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인지, 어휘인지에 따라, 기술하는 내용이 기준 항목에 대한 일반 지식인지 언어학적 지식인지에 따라 변별된다. 사전(事典)에서 다루는 항목이 지식 전반을 망라할 때 이를 백과사전(百科事典)이라 한다.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사전이 바로 ‘백과사전적 사전(Encyclopedic Dictionary)’이다. Martin(1999)에서 언급한 대로 백과사전적 사전에 대해서는 1992년 LDELIC(the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와 OALD(Oxford Advanced Learner's Encyclopedic Dictionary)가 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백과사전적 사전의 등장은 사전 편찬의 환경 변화라는 외적 요소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전(辭典)이 언어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언어가 담고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고 사전과 관련되는 학문이 언어학만이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문화학 등을 비롯한 학문 전반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Bo Sevensen(2009)에서는 소위 백과사전성(encyclopedicity)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언어 사전, 약간의 백과사전적 요소를 포함하는 언어 사전, 백과사전적 사전, 백과사전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국어사전 중에는 아직 백과사전적 사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전을 찾아보기 힘들고<sup>1)</sup>, 사전(辭典)과 문화사전, 백과사전 등이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문화를 반영한 백과사

1)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소개한 ‘New millenium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2003)’이 있으나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영어로 기술되어 있다.

전적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김은영(2014)와 같이 주로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들을 상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백과사전적 사전의 구현이 배경 지식을 통해 어휘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교수·학습 콘텐츠라는 사전의 기본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국인을 위한 사전에서도 문화를 중심으로 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반영할 문화적 요소로 불교문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공식적으로 신자가 약 23%로 가장 많기도 하지만 통시적으로 역사가 약 1650년으로 제일 길고, 조선 시대에 억불 정책을 펼치기 이전까지 생활에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 언어가 한국어 어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전에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다는 것은 불교가 한국어 어휘의 의미 및 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언적인 명제를 개별 어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 언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망라하고, 기존 사전의 불교 관련 기술 내용을 검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불교와 관련된 국어사 자료와 한글대장경 등을 분석하여 한국어 어휘에 대한 불교문화의 영향력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불교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기존 국어사전에 기술된 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 불교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

어휘로서의 전문용어와 변별되는 개념으로 전문어는 ‘전문성을 띤 의사소통에 쓰이면서 전문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총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어로서의 ‘불교 언어’는 ‘불교라는 종교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쓰이면서 불교의 포교와 불교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 언어’를 불교라는 종교와 관련된 언어적 요소 전반으로 넓게 볼 때 불교 언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언어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특정 승리의 언어관 탐색, 불교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환기(2012), 박태원(2013) 등에서는 불교라는 종교에서 언어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안환기(2012)는 ‘식(識)’이라는 마음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최초의 계기가 진리를 전달하는 언어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인간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통해 결과를 마음에 축적하게 되는데 이 축적된 업이 남긴 영향력인 종자의 형성은 언어로 표현된 진리를 잘 듣고 이를 마음에 새기는 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보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일상의 언어로 중생에게 전해 주는데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윤회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중생을 구원하게 된다. 박태원(2013)에서는 언어적 사유의 한계와 함정도 언어적 성찰력의 자기 점검과 비판에 의해 출구를 전망할 수 있으므로 언어적 성찰력이 존재 해방과 실존 정화의 토대라고 보았다. 언어적 성찰력은 관점과 주장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맥락과 의미를 소화해 내는 능력이고 이를 키우려면 관점과 주장을 담아 유통되는 언어에 접속하여 이를 소화해 내려는 언어 적극성이 요구된다. 선의 지평은 선의 마음자리와 세간사 만나기가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언어적 이해와 지적 성찰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적 언어관 중에는 중생이 실체적 언어 관념을 토대로 사실적 현상을 왜곡시키고 오해를 증폭시킨다는 언어의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주성욱(2012)에서는 언어적 표현 중에서도 은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불교 경전과 어록에서 은유가 중요한 교화와 수행의 방법으로 적용된 사례에 주목하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에 작용하는 은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학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은유가 언어의 특별한 기교가 아니라 언어의 본질적인 것이며 사고와 행위의 중심적 기제라는 인지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유가 인식과 정서 양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인식적 통찰과 심리적 고통의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언어관에 대한 고찰은 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흥구(2016)에서는 의상이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의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언어인식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쉽게 요약한

것이 ‘반시’라고 하였다. 의상에게 있어 언어는 열반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향한 깨달음이 아니라 찰나의 인과동시적 깨침이며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활용하는 실천적 언어이다. 이흥구(2016)에서 지적한 대로 의상의 언어관에 대한 연구보다는 원효의 언어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도흙(2013)에서는 원효가 언어로는 사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진여의 실체에 이를 수 없고 현실과 사물에 대해서 실상대로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어를 매개로 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펼치고 진실하여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진제와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현실 생활의 이치인 속제를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보았다. 앞선 연구인 이도흙(2007)에서는 원효의 언어관을 언어학자, 철학자와 비교한 바 있다. 소쉬르와 하이데거, 원효 모두 언어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으며 언어의 심층에 이를 규정하는 무의식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다는 것을 언어관의 공통점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소쉬르는 음성과 사상을 연결하는 것이 언어의 역할이라고 봤다면, 하이데거는 언어가 표현이나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본질로 이끌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원효는 언어 스스로는 공하지만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쉬르의 언어관은 원효뿐만 아니라 디그나가와도 접목되었는데 원철(2013)은 소쉬르의 언어 이론이 선행하는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이름의 목록으로 보던 명명법적 언어관에서 탈피하여 세계로부터 언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분리해 내었기 때문에 이후의 사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는 존재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오는 인식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그나가의 아포하론과 맥을 같이 하며 소쉬르와 디그나가 모두 언어를 현상적 표현과 내용의 기저에 놓인 심층적 체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불교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은 특정 불경을 분석한 연구와 불교 영역 전반에서 쓰이는 어휘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우선 불경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영길(2000)은 금강경언해, 정우영(2002)은 남명집언해, 장영길(2002)은 관음경 언해, 여찬영(2002)와 정우영(2003)은 원각경 언해를 분석하였는데 표기, 음운, 형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재영·김성주(2010)은 영광 불갑사에서 나온 복장 전적 여러 종을 언해 자료와 구결 자료

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교 어휘에 대한 연구는 음역의 문제와 의미 변화로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 김지형(2000)에서는 불교계 어휘를 개별 언어 속에 차용된 다른 개별 언어의 낱말들이 오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차차 외국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고유어로 인식되는 귀화어로 보고, 대부분 한자어인 불교계 어휘 중 범어를 음역한 어휘들의 음운적 변모 양상을 『우리말 큰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교계 어휘가 범어에 기원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의 음운 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어 수용되었으며 일단 편입된 이후에는 음운뿐만 아니라 의미, 조어의 측면에서 독자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됨을 밝혔다. 안형관·전영숙(2004)에서는 불교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을 소리를 표기하는 음사어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자의 음으로 외국어의 음을 나타내어 글자가 가진 뜻과 관계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본래의 발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살, 반야 등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전파와 불교 사상의 발전에 있어 불경의 번역이 중요한 문제이며 적절한 용어의 선택과 음사어의 올바른 표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평래(2004)에서는 기존의 한문경전을 한글경전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기준이 될 불교용어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리글자로 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불교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불교 영역에서 쓰이던 전문용어가 일반어의 의미를 획득하여 의미 확장이 일어난 양상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는데 이정일(2002)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1) ㄱ. 가명(假名)

불교 용어의 의미는 사물에 붙여진 실답지 않은 헛된 이름을 말하며, 현대 국어의 의미는 실제의 자기 이름이 아닌 이름. 즉 ‘가짜 이름’으로 순화되어 쓰인다.

#### ㄴ. 각오(覺悟)

불교에서는 거룩한 지혜가 한번 일어날 때에 잠을 깨는 것과 같이 흰하게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어의 의미는 앞으로 닥쳐 올 위협이나 불리한 결과 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이르는데, 예를 들면

‘죽음을 각오하다. 싸울 각오는 되었느냐?’ 등의 쓰임을 보인다.

이정일(2002)에서는 (1)에서 보인 바와 같은 형식으로 204개의 어휘에 대해 불교 영역에서의 원의와 일반어로서의 의미를 함께 기술하고 간혹 순화어나 용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사전식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전에서는 정보가 보다 구조화되어 제공된다. 다음 장에서 기존의 국어사전에서 불교와 관련한 어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III. 국어사전의 불교 관련 어휘 기술 현황

국어사전에서 불교와 관련한 어휘는 전문용어 표제어를 통해서 기술되는데 『표준국어대사전』<sup>2)</sup>을 기준으로 할 때 ‘고유명사, 역사, 불교’ 등의 부류에 걸쳐서 분포한다. (2)는 불교와 관련된 고유명사의 예인데 (2ㄱ)와 같은 기념일도 포함된다. ‘부처님 오신 날’의 유의어로 기술된 강탄절, 불생, 불생일, 불일, 불탄일, 불탄절, 석가 탄신일이 모두 고유명사로 등재되었다. (2ㄴ)은 불교의 원조인 석가모니가 속한 인도의 종족명이다. (2ㄷ)과 같은 인명, (2ㄹ)과 같은 책명도 고유명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표준』에서 인명, 지명, 책명, 기타 고유명사를 구분하여 별도의 표지를 주었기 때문에 각각 인명, 책명으로 분류되었다.

(2) ㄱ. 부처님^오신^날

『고유』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음력 4월 8일이다. ≡ 강탄절 · 불생02(佛生)「2」 · 불생일 · 불일03(佛日)「2」 · 불탄일 · 불탄절 · 석가 탄신일.

ㄴ. 석가03 (釋迦) [-까]

「명사」 「1」 『고유』 고대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는 종족의 하나. 석가모니도 이에 속한다.

2) 이하 『표준』로 표현한다.

ㄷ. 원효 (元曉)

「명사」『인명』 신라의 승려(617~686). 속성은 설(薛). 신라 십성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해동종(海東宗)을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불교 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도 노력하였다. 저서로 《금강삼매경론소(金剛三昧經論疏)》,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화엄경소(華嚴經疏)》 따위가 있다.

ㄹ. 불정심경-언해 (佛頂心經諺解) [-쟁----]

「명사」『책명』조선 성종 16년(1485)에 인수 대비가 《불정심다라니경》,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產方)》,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에 그림을 곁들이고 한글로 풀이한 책. 《법화경》 중에서 <관세음보살보문품>만을 분리한 것으로, 국어사 연구 및 전통 회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다른 불경 언해서와는 달리 목판본인 한문본과 활자본인 언해본이 합철되어 있다. 3권 1책. ≍ 관음경언해·불정심다라니경언해.

(3)의 ‘간경도감, 교장도감’ 등 불경의 제작과 관련된 관아의 명칭은 기관명이므로 고유명사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점의 전문용어는 역사 영역에서 총괄하여 다룬다는 지침에 근거하여 역사 전문용어로 기술되었다. 한편 (4ㄱ)의 ‘가구경행’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려의 시대의 문화이므로 역사 전문용어로 분류해야 하지만 불교 영역에 속해 있다. 불교와 관련된 어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 (4)와 같은 불교 전문영역이다.

(3) ㄱ. 간경-도감 (刊經都監)

「명사」『역사』조선 시대에, 불경의 번역 및 간행을 맡아보던 임시 관아. 세조 7년(1461)에 두어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등 수많은 불경을 언해하여 간행하였으며, 성종 2년(1471)에 폐지하였다.

ㄴ. 교장-도감 (敎藏都監) [교:---]

「명사」『역사』고려 시대에, 속장경의 판각(板刻)을 맡아보던 관아. 선종 3년(1086)에 대각 국사 의천의 제청으로 흥왕사에 설치하였다.

(4) ㄱ. 가구-경행 (街衢經行)

「명사」『불교』고려 시대에, 승려들과 일반 신도들이 음력 이월에 불경을 외면서 개경 거리를 돌며, 백성들의 복을 빌던 의식. 고려 정종



12년(1046)에 이 행사가 처음 행하여졌으며 그 뒤로는 연중행사가 되었다.  
≡경행04(經行)「3」.

ㄴ. 가무-보살 (歌舞菩薩)

「명사」『불교』천계(天界)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며, 극락왕생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보살.

최경봉(2016)에 의하면 『표준』의 개정판에서는 종교와 관련한 전문영역을  
가톨릭,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총 10,097항목의 불교  
전문용어를 수록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2000-)에 따르면 『표준』에서 불교  
전문용어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5)와 같다. (5ㄷ)의 불경 중 언해서는 (2  
ㄷ)과 같이 ‘책명’의 표지를 주어 고유명사로 처리하였다.

(5) ㄱ. 절, 전각, 당

예) 조계사, 통도사, 약사당, 극락전

ㄴ. 불보살이나 불상

예) 무량광불, 대세지보살, 약사삼존

ㄷ. 불경

예) 아미타경, 화엄경

ㄹ. 종파

예) 법화종, 천태종, 선가오종

ㅁ. 수행 방법

예) 약사법, 반야선

ㅂ. 문

예) 사천왕문

ㅅ. 불교 관련 인명

ㅇ) 아난, 가섭

(2)~(4)에 제시된 불교 관련 어휘는 거시 구조의 측면에서 백과사전적 항  
목이며 미시 구조 내에 언어학적 지식과 백과사전적 지식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 모든 어휘에 대해 기본적인 의미가 풀이되어 있고 한자를 비롯한 원어  
정보, 품사 정보, 발음 정보, 유의어 정보가 개별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시되

어 있다. 종차와 유개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본 뜻풀이 뒤에 어휘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서술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표준』에서 기본 뜻풀이 뒤에 서술식으로 제시한 추가 정보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불교 어휘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의 경우는 어휘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용례를 제시하여 불교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려 했다. 다음 (6)은 ‘반야’에 대한 『표준』과 『연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기술을 함께 보인 것이다. (6ㄱ)은 서술식 추가 정보를, (6ㄴ)은 풍부한 용례를 제시하였고, (6ㄷ)에서는 나머지 사전과 달리 다양한 한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6) ㄱ. 『표준』 반야(般若)

대승 불교에서,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앞으로써 성불에 이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른다.

ㄴ. 『연세』 반야(般若)

(불교에서) 모든 사물의 본질과 불법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 ▶ 반야를 얻어 성불하면 보살이나 부처가 된다.
- ▶ 불자들은 반야의 참뜻을 바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반야다.

ㄷ. 『고려』 반야(般若/波若/班若/鉢若)

모든 사물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불법(佛法)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知性)의 작용. 또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

형식적으로 언어학적 지식을 기술한 부분과 백과사전적 지식을 기술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사전 편찬자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나누어 집필하여 합하면 되지만 전문 영역의 어휘의 경우 언어학적 정보가 전문적인 지식에서 완벽하게 독립될 수 없다. 불교 어휘의 경우 국어사전 편찬자가 산스크리트어나 한자어로 된 원어 정보를 검증하기 힘들고, 적절한 뜻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유의어나 관련어의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의 난이도도 높다. 국어사전의 전문영역 어휘를 기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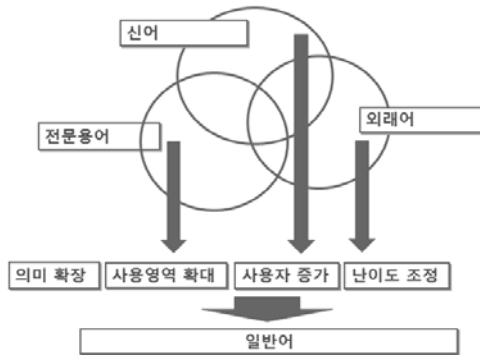
- (7) ㄱ. [사전 편찬자] 영역별 전문용어 표제어 및 표제어 후보군 규모 결정
- ㄴ. [사전 편찬자] 영역별 전문가에게 표제어 후보 선정 및 기술 의뢰  
        (거시구조, 미시구조 틀 제시)
- ㄷ. [영역별 전문가] 표제어 후보 선정 및 기술
- ㄹ. [사전 편찬자] 일반어 표제어 목록과 교차 검토
- ㅁ. [사전 편찬자] 타 영역 전문용어 표제어 목록과 교차 검토
- ㅂ. [사전 편찬자] ㄹ, ㅁ을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 선정 후 기술 내용 통합
- ㅅ. [사전 편찬자]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비어 있는 미시 구조 보완
- ㅇ. [사전 편찬자] 1차 교정 및 교열
- ㅈ. [영역별 전문가] 최종 검토
- ㅊ. [사전 편찬자] 2차 교정 및 교열

사전 편찬자는 거시 구조의 차원에서 해당 전문영역의 표제어 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등재될 표제어 항목의 수보다 넉넉하게 표제어 후보군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영역별 전문가들이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표제어를 삭제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제어 후보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하고 나면 각 표제어를 기술할 미시 구조 틀과 함께 영역별 전문가에게 전문용어의 사전 기술을 의뢰하게 된다. 전문가가 작성하는 사전 원고가 완성되면 사전 편찬자는 최종적인 목표 표제어 수에 맞추어 표제어를 재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일반어 표제어 목록, 다른 전문영역 표제어 목록 등과 교차 검토하게 된다. 이때 일반어 표제어나 타 영역 표제어와 겹치는 것이 확인되면 각각의 기술 내용을 다의어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누락한 미시 구조 정보를 보완한다. 이후에는 사전 편찬자와 영역별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정·교열하여 최종 원고를 완성하게 된다. (5ㄷ)에서 표제어 목록의 교차 검토 결과를 최종 표제어 선정에 반영하는 이유는 전문용어 중에서도 일반 국어사전 사용자가 접할 가능성이 높은 어휘,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가 국어사전 표제어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5ㄹ)의 결과 전문용어 표제어 목록과 일

반어 표제어 목록의 교집합에 속하는 어휘들에는 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휘가 생성되어 성장하고 쇠퇴하며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미나 사용 범위의 변화를 크게 겪은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 IV. 국어사전에 나타난 불교 용어의 일반어화

전문용어와 일반어가 넘나드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된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방경원(2002)에서는 일반어가 전문용어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전문용어가 된 후에 다시 일반어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고, 홍희정(2007)에서는 전문용어가 일반어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방경원(2002)와 홍희정(2007)의 논의는 나머지 한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립이 가능하지만 일반어의 집합과 전문용어의 집합 중 어느 쪽의 변화가 활발한가를 고려할 때 홍희정(2007)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불교 영역의 어휘를 살펴보면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들여온 어휘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의미 확장을 일으킨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어의 전문용어화보다는 전문용어의 일반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김한샘(2015)에서 제시한 전문용어가 일반어가 되는 원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문용어 일반어화의 원리>

전문용어는 그림 1과 같이 의미 확장, 사용영역 확대, 사용자 증가,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면 일반어로도 쓰이게 된다. 전문용어가 일반어화되는 것은 점진적인 통시적 변화이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그 정도를 다의어 기술 방식을 통해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된다. 전문용어로서의 용법이 주된 경우에는 전문영역 표지를 단 단의어로 기술되고, 전문용어의 일반어화가 진행된 경우 전문용어로서의 의미와 일반어로서의 의미를 각각 다의어로 기술하되 어느 것을 먼저 배열하느냐로 개별 어휘의 일반어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2000년)에서는 『표준』에서 다의어를 배열할 때 일반어와 전문어 중 기본적인 뜻을 먼저 배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의 다의어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불교용어로 기술된 어휘 중 방언, 북한어 등을 제외한 8142항목 중 (8)의 ‘와전불, 개해하다’와 같이 불교용어로만 쓰이는 단의어가 5005항목, (9)의 ‘나무아미타불, 행향하다’처럼 일반어보다 불교용어로서의 다의어를 먼저 배치한 것이 794항목, (10)의 ‘강당, 무아’처럼 일반어 다의어를 먼저 배치한 것이 1856항목이었고, 487항목은 타 영역의 전문용어 다의어를 먼저 배치한 것인데 (9)의 ‘수도승’과 같이 다른 종교와 용어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11)의 ‘인타라’처럼 같은 대상이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8) ㄱ. 와전-불 (瓦塼佛)

「명사」『불교』흙을 구워 만든 불상.

ㄴ. 개해-하다 (開解--)

「동사」『불교』도리를 이해하다.

(9) ㄱ.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 1 ] 「명사」 「1」 『불교』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함을 이르는 말.  
 ≒ 나무아미타.

▶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도 살아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김성동, 만다라>/어머니는 염주를 돌려 가며 나무아미타불을 중얼중얼 외치며 자리를 비켜 주시고 병인의 얼굴 앞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셨다. <염상섭, 만세전>

「2」 공들인 일이 헛일이 됨을 이르는 말.

¶ “석아, 잘해라.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될라.” 기화는 철없는 동생을 보듯 걱정스러워했고… <박경리, 토지>/대흥수로 칠 할가량 진척되었던 공사는 완전히 나무아미타불로 되었던 일이 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Ⅱ] 「명사」 「1」 『불교』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으로, 엄불할 때 외는 소리.

ㄴ. 행향하다 (行香--)

「명사」 「1」 『불교』 재식(齋食) 때 시주가 먼저 승려들에게 향을 나누어 주다.

「2」 = 분향하다.

(10) ㄱ. 강당 (講堂) [강-]

「명사」 「1」 강연이나 강의, 의식 따위를 할 때에 쓰는 건물이나 큰 방.

¶ 학교 강당/강당에 모여 합창 연습을 한다.

「2」 『불교』 경(經)과 논(論)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 재래식 불교 학교를 이른다. ≍ 강원02

ㄴ. 무아 (無我)

「명사」 「1」 자기의 존재를 잊음.

¶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다.

「2」 사심(私心)이 없음.

「3」 『불교』 일체의 존재는 모두 무상하며 고(苦)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인무아와 범무아 둘로 나눈다.

「비」 「1」 망아02(忘我); 「1」 몰아(沒我).

(11) ㄱ. 수도-승 (修道僧)

「명사」 「1」 『가톨릭』 수도회 회원을 이르는 말.

「2」 『불교』 도를 닦는 승려.

ㄴ. 인타라(認陀羅)

「명사」 「1」 『문학』 ‘인드라’의 음역어.

「2」 『불교』 하늘을 주재하고 천둥과 번개를 부리는 신(神). 지성으로 찬탄하는 노래와 소마(蘇摩)의 힘으로 항상 마신(魔神) 또는 이수라와 싸운다고 한다. ≍ 인달라 · 인달라대장.

(9)와 (10)은 하나의 어휘가 불교 분야의 전문용어로도 쓰이고 일반어로도 쓰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일반어가 불교 용어가 되는 일이 거의 드물다는 전제를 인정한다고 할 때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 사용자는 다의어의 배열 순서로 공시적인 차원의 불교 용어의 일반어화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어휘의 일반어화 정도를 편찬자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근거가 없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sup>3)</sup>를 검색해 보면 (9-1)의 ‘나무아미타불’이 공들인 일이 헛일이 됨을 이르는 일반어로 쓰인 것은 전체 332건 중 35건으로 10.6%에 불과해 불교 용어로서의 다의어를 먼저 기술한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9-2)의 ‘행향하다’는 총 3회 출현하였는데 다음 (12)와 같이 모두 왕이 절에 가서 분향을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포털 사이트의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행향’을 포함하는 (12)와 같은 문장들을 통해서 ‘분향’을 뜻하는 ‘행향’이 불교 이외의 종교적 의식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향하다’와 ‘행향’의 말뭉치 용례에 따르면 다의어의 배열은 ‘분향하다’라는 의미의 다의어를 먼저 배치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나 조의를 표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분향하는 것과 관련한 용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분향과 동의 관계라는 것으로 뜻풀이를 대신한 다의어에 ‘종교’의 표지를 부여해야 한다.

- (11) ㄱ. 태조의 진전(眞殿)을 배알하고 연등(燃燈)에는 친히 진전(眞殿)에 행향(行香)하였는데
- ㄴ. 왕이 법해를 불러 황룡사에서 화엄경을 강하게 하고 친히 행차하여 손수 행향하였다.
- ㄷ. 연등회라 하여 그 달에 왕은 반드시 봉은사에 가서 행향한 후에 비로소 대회가 열리고
- (12) ㄱ. 풍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행향의식(行香儀式, 기원제)을 통해 지난 한 해 쌓였던 충주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 시민들의 안녕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했다.
- ㄴ. 지난해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향의

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20세기 문헌을 출판 시기와 텍스트 유형을 기준으로 수집하여 구축한 1억 5천만 어절 규모의 문어 말뭉치.

식'을 시작으로 충주호에 해가 솟아 오르는 시각에 맞춰 '새해덕  
담'을 나누게 된다.

한편 일반어로서의 쓰임이 우세하다고 『표준』에서에서 기술한 (10ㄱ)의 '강당'은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1억 5천만 어절 중 (13ㄱ)의 단 한 번만 불교 전문용어로 쓰였다. (13ㄱ)의 '강당'은 재래식 불교 학교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3ㄴ)과 같이 강연이나 강의, 의식 따위를 할 때에 쓰는 건물이나 큰 방이라는 의미의 일반어로 쓰인 '강당'의 빈도는 1,744에 달해 일반어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무아'의 용례 193개 중 (10ㄴ)의 첫번째 다의어와 같이 '무아의 경지'라는 어구를 포함하는 것이 (14ㄱ)을 비롯하여 50개나 되었다. (14ㄴ)처럼 엄격한 불교 용어로서 '무아'라는 어휘를 사용한 용례는 27개에 불과했다. '강당'과 '무아' 모두 불교 용어가 일반어로 잘 정착한 사례이다.

- (13) ㄱ. 암청색 소나무숲 사이로 그림 같은 흰 건물이 엮보였다. 강당인 모양이었다. 그 학교 자체를 높이 사백 미터가 못 되는 낙타등골의 두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 ㄴ. 남북 주심축선상에 중문, 8각목탑, 금당, 강당이 배치되었는데 8각목탑 좌우에도 금당이 배치되어 고구려식 가람의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
- (14) ㄱ. 불게 타고르는 그 꽃보라를 보노라면 무아의 경지에 다다른다.
- ㄴ. 열반의 세계는 제행 무상, 제법 무아를 체득하여 나라고 하는 자의식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적인 상태이다.

국어사전에는 일반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불교 용어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아래 (15ㄱ)의 '감응'은 일반어와 물리 분야 전문용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15ㄴ), (15ㄷ)과 같은 '감응'을 포함하는 합성어나 구가 존재하고, 의미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불교 용어로서의 다의어를 추가할 만하다. 반대로 (16ㄱ)의 '가책'은 불교용어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되 어휘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였으므로 (16ㄴ)과 같이 다의어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ㄱ. 감응 (感應) [가:응]

「명사」 「1」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 그는 아무 감응도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벽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기묘한 감응을 느꼈다.

「2」믿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에게 통함.

¶ 축원이 신의 감응을 얻으면 신대가 떨리고 신이 내린다고 한다./월명사는 꽃을 뿌리며 도술가를 불러서 부처의 감응을 받았는데...《최명회, 혼불》

「3」『물리』전기장이나 자기장 속에 있는 물체가 그 전기장이나 자기장, 즉 전기·방사선·빛·열 따위의 영향을 받아 전기나 자기를 띠는 것. 또는 그 작용. ≒핍「2」·유도08(誘導)「2」.

¶ 새로 나온 필름은 빛에 대한 감응 능력이 뛰어나다.

ㄴ. 감응-불사의 (感應不思議) [가:응-싸의/가:응-싸이]

「명사」 『불교』부처와 중생과의 감응은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음.

ㄷ. 감응^납수 (感應納受)

『불교』사람의 불심(佛心)에 부처가 응답함으로써 부처와 중생이 긴밀히 맺어지는 일.

(16) ㄱ. 가책01 (呵責) [가:-]

「명사」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함.

¶ 가책을 받다/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일이 잘못되자 몹시 가책이 되었다.

ㄴ. 가책01 (呵責) [가:-]

「명사」 「1」자기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망함.

¶ 가책을 받다/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일이 잘못되자 몹시 가책이 되었다.

「2」『불교』남의 잘못을 야단하거나 비난함. 수행자가 계율을 어길 경우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불교 용어에 스며있는 문화적 배경과 일반어화의 과정 등을 기술하는 것은 언어 사전에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백과사전적 사전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정보와 기존의 언어학적 정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밝혀야 한다. 백과사전적 정보와 언어 사전의 정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로 ‘야단법석’을 들 수 있다.

(17) ㄱ. 두산백과(동아출판사)

야단법석 [野壇法席]: 《불교대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야단(野壇)’이란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이다. 즉,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이다.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석가가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할 때 최대 규모의 사람이 모인 것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을 때로 무려 3백만 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게 된다. 이처럼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쓰이던 말이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게 되었다.

ㄴ.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야단법석(野壇法席):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은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 법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야단법석’은 불교 용어가 일반어로 변한 사례로 많이 언급되며 (17)과 같이 백과사전, 시사상식사전 등에서도 야외법회라는 뜻의 야단법석이 상황의 유사성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언어 사전에서는 불교 용어로서의 ‘야단법석’과 일반어로서의 ‘야단법석’을 별개의 동형어로 기술하고 있다. (18)은 『표준』의 내용이지만 『고려』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개의 동형어의 분포를 보면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 등장한 471번의 ‘야단법석’이 모두 일반어로 해석된다. (18ㄱ)과 (18ㄴ)은 의미도 변별되지만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에 대한 정보도 전혀 다르다. 불교 용어 ‘야단법석’은 ‘野壇法席’와 같이 전체에

대응되는 한자가 있으나 일반어 ‘야단법석’은 ‘야단’만 ‘惹端’와 같은 한자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기술되어 있다.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야단을 하다, 야단을 부리다, 야단이다’에 쓰인 ‘야단’에 주목해 보면 또 다시 (19)와 같은 동형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간혹 이때 ‘야단’이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킨다는 ‘야기요단(惹起鬧端)’의 준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기요단’과 ‘야단을 떨다’의 ‘야단’은 분명 다른 말이다. 일반어로서의 ‘야단법석’과 ‘야단’의 동형어를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한자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말큰사전』에서는 (20 ㄱ)과 (21 ㄱ)과 같이 ‘야단법석’과 ‘야단’을 고유어로 기술하고 있다.

(18) ㄱ. 야단-법석01(野壇法席)[야--씩] [야단법석만[야--쌩-]]

「명사」『불교』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ㄴ. 야단-법석02(惹端--)[야--씩] [야단법석만[야--쌩-]]

「명사」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

(19) ㄱ. 야단01(惹端)[야-] 「명사」

「1」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림. 또는 그런 짓.

「2」소리를 높여 마구 꾸짖는 일.

「3」난처하거나 딱한 일.

ㄴ. 야단02(惹端)[야-] 「명사」 =야기요단.

(20) ㄱ. 야단-법석 ㉠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몹시 소란스럽게 구는 일. ㉡손인지 발인지 들끓어서 ~을 떠나 틈이 나야지.

ㄴ. 야-단-법석[野壇法席]. ㉠ <불> 야외에 베푸는 강좌.

(21) ㄱ. 야단 ㉠ 매우 떠들썩하고 부산하게 벌어진 일. ㉡소풍간다고 ~들이다. ㉢소리를 높이어 마구 꾸짖는 일. ㉣~을 맞다. ㉤탈이 날 만큼 곤란한 일이 생김. ㉥그까짓 게 ~은 무슨 ~이야.

ㄴ. 야-단[惹端]. ㉠ ‘야기요단’의 준말.

## V. 맺음말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수입된 불교문화가 반영된 불교용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되면서 종교 영역의 전문용어, 새로 생긴 신어, 음차 표기되거나 의역된 외래어에서 국어 어휘로 위상을 얻으며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범위는 일반 대중으로 넓어지고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으며 그 정도는 개별 어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국어사전에서 불교와 관련한 고유명사, 전문용어 등과 관련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일부 수록하였지만 국어사전이 문화 콘텐츠라는 차원에서 어휘의 기원을 충실히 밝혀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국어사전에서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뜻풀이 뒤에 서술식으로 제시하였는데 관련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별도의 미시 구조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교 어휘에 대한 기존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한 사전 안에서 언어 단위에 따라 전문 영역 표지가 달라지는 경우, 사전별로 불교 전문용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기존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와 사전의 기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등 섬세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도출되었다. 향후 불교 영역 전문가와 국어학자, 사전 전문가의 교류 활성화, 문헌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기술 근거의 확보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을 개별 어휘에 대한 정보로 녹여내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 ❖ 참고 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2000ㄱ.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2000ㄴ.

김은영,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편찬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김지형, 「통일시대의 문화: 음운의 변용과 불교계 어휘의 형성」, 『한국의 민속과 문화』 3권, 2000.
- 김한샘, 「전문용어의 일반어화에 대한 소고」, 『한민족어문학』 71, 2015.
- 박태원, 「원효 선관의 철학적 읽기 -선과 언어적 사유의 결합 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16, 2013.
- 방경원, 「전문어연구 - 개념설명, 연구방법 및 연구현황 소개 -」, 『독일언어문학』 18, 2002.
- 안형관·전영숙, 「불경 번역에 있어서 주요 용어의 음역에 관한 고찰」,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7-1, 2004.
- 안환기, 「언어에 의한 "식"의 변화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16, 2012.
- 여찬영, 「원각경 언해의 조사 이형태 교체」, 『한국말글학』 19, 2002.
- 원철, 「소쉬르의 언어이론과 디그나가의 아포하론」, 『동아시아불교문화』 13, 2013.
- 이도흠, 「소쉬르의 현재성과 탈현대성; 소쉬르, 하이데거, 원효의 언어관 비교 연구」, 『기호학 연구』 21, 2007.
- \_\_\_\_\_, 「교체설, 체용론과 원효의 언어관」,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 이정일, 「국어 어휘 속의 불교 용어」, 『불교어문논집』 7, 2002.
- 이평래, 「불교학술용어표준화사업의 미래상」, 『한국불교학』 39, 2004.
- 이흥구, 「통찰적 지혜 획득을 위한 언어인식의 재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 78, 2016.
- 장영길, 「금강경언해의 음운사적 고찰」, 『불교어문논집』 5, 2000.
- \_\_\_\_\_, 「관음경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불교어문논집』 7, 2002.
- 정우영, 「남명집언해의 음운표기법과 어휘」, 『불교어문논집』 7, 2002.
- \_\_\_\_\_, 「원각경언해 연구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불교어문논집』 8, 2003.
- 정재영·김성주, 「영광 불갑사 복장 전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지학보』 35, 2010.
- 주성욱, 「심리치료의 언어로서 은유와 그 불교적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12, 2012.
- 최경봉, 「국어사전에서 종교 용어의 처리 방안」, 『우리어문연구』 54, 2016.
- 홍희정,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에 관한 연구」, 『언어정보와사전편찬』 17-21, 2007.

Landau, Sidney I., *Diction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Stark, Martin, *Encyclopedic Learners' Dictionaries*, Tübingen: Niemeyer, 1999.  
Bo Svensen, *A Handbook of Lexic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참고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6.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현대한국어사전』, 201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1991.

동아출판사, 『두산백과사전』, 1984.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2010.

## ❖ ABSTRACT

## The Korean Dictionary and the Buddhist Language: Description of Popularity of Buddhism Terminologies

Kim, Han-saem

This paper focuses on the terminology of the dictionary as an encyclopedic element in the Buddhist language. The previous study on Buddhist language can be divided into a philosophical approach to the language itself, a review of the linguistic perspective of a specific monk, and a linguistic examination of the Buddhist language. The linguistic examination of the Buddhist language is further divided into analysis of certain Buddhist scriptures, and a study of vocabulary used throughout the Buddhist sphere. The Buddhist vocabulary in the existing Korean dictionary is found in specialized areas such as name, place name, history, and Buddhism. By advancing the generalized words of the terminologies, the meanings of the terminologies and the general words are described as polysemy.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degree of transition from terminology to general word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of senses. In the case of Buddhist vocabulary, the usage as a general language and as a Buddhist term was given priority, and vocabulary was also derived from a Buddhist term, although it was described as a general language. If a dictionary is changed according to the language unit it contains, the difference in a Buddhist terminology for each dictionary, and a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academic research result and the prior description, will need to be resolv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religious experts, linguists, and lexicographers.

---

### Key Words

dictionary, encyclopedia, terminology, Buddhism terminologies, polysemy

218 비교문화연구 제45집 (2016.12.)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